

10/12(월) 사사기 묵상 1

사사기 1:1-15

사사기는 여호수아가 죽고 난 이후 이스라엘의 첫번째 왕인 사울이 즉위하기까지 약 340년 간의 역사를 기록한 내용입니다. 사사기는 사무엘에 의해 기록된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모두가 동의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사사들에 대한 기록'이라는 뜻으로 사사는 재판관(Judge)을 뜻합니다. 이는 당시 재판을 했던 사람이 이스라엘의 지도자였음을 말해주는 것입니다(ex, 모세의 재판, 솔로몬의 재판 등등).

여호수아가 죽은 후

사사기 1장 1절은 다음과 같이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쭙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이까”** 이것은 여호수아 1장 1절에서도 “여호와와 종 모세가 죽은 후에..”로 시작되었던 것처럼 이제 한 세대가 끝나고 그 다음 세대가 시작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이전 세대와 사사기 시대의 가장 큰 차이점은, 모세와 여호수아 이후 사사 시대에는 강력한 지도자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정치적 상황 속에서 사사기는 시작되고 있습니다. 비록 불안한 출발을 시작하는 이스라엘처럼 보이지만 사사 시대는 역사상 유일하게 이스라엘에 인간 지도자 없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통치하시며 다스리던 시기였습니다. 이 때 하나님께서는 필요할 때마다 사사들을 보내주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훗날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인 사무엘이 이스라엘을 다스릴 때에 백성들은 인간 왕을 요구하게 됩니다. 그 때 사무엘은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이 자기들의 왕을 요구하는 것은 사무엘을 버린 것이 아니라 **“내가 그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라(삼상 8:7)”**고 말씀하기도 하셨습니다. 이처럼 사사 시대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다스리던 시기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시험의 기간이었습니다. 그 시험은 눈에 보이지 않는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따를 것인가? 아니면 눈에 보이는 우상 즉 가나안의 안정되고 풍요로운 삶을 쫓을 것인가?의 싸움이었습니다. 이는 이미 모세를 통해 모압 평지에서 신명기 7:1-11절에 주어진 말씀이었고 여호수아도 당부한 말씀이었습니다(수 23:3-13). **신 7:9-11, “그런 너는 알라 오직 네 하나님 여호와와는 하나님이지요 진실하신 하나님이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 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그를 미워하는 자에게는 당장에 그에게 보응하시느니라 그런즉 너는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명령과 규례와 법규를 지켜 행할지니라.”; 수 23:7-8절, “너희 중에 남아 있는 이 민족들 중에 들어 가지말라 그들의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 그것들을 가리켜 맹세하지 말라 또 그것을 섬겨서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라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하기를 오늘까지 행한 것 같이 하라.”**

이전 세대가 남긴 과제

여호수아가 죽기까지 가나안 정복은 아직 완성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수 24:23, **“여호수아가 이르되 그러면 이제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들을 치워 버리고 너희의 마음을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로 향하라 하니”**). 비록 가나안 땅을 전체적으로 정복하고 이미 각 지파에게 그 땅을 분배했지만 아직 그곳에는 미 정복한 지역과 잔존 가나안 원주민들 그리고 우상들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누가 먼저 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울지를 묻고 나서(1절), 유다 지파는 분배 받은 지역으로 가서 순종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유다 지파를 보내시면서 그 땅을 이미 그들에게 넘겨주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2절). 이는 여호수아에게 처음 약속

하신 말씀과 같이 이스라엘은 이미 승리가 보장된 싸움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유다 지파는 시므온 지파와 함께 내려가서 그들이 분배 받은 땅에 있는 가나안 족속들을 물리치고 약속의 땅을 취하게 되었습니다(4-10). 특히 유다 지파의 갈렙도 모세와 여호수아에게 분배 받은 땅을 믿음으로 차지하게 되었습니다(11-15).

사사 시대가 시작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놓여진 시험과 남은 과제처럼 우리에게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인으로 당면한 시험과 영적인 과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 이 세상의 우상 둘 중에 어느 것을 섬기며 살아갈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이에 예수님께서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마 6:24,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 하느니라.”** 즉, 예수님은 우상 대신에 그것을 재물이라고 구체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재물은 우리에게 우상과도 같은 존재이고 우리의 신앙을 시험하는 대상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재물의 우상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야 하는데 그 첫번째 시험 과제는 헌금 생활입니다. 왜냐하면 헌금은 우리의 재물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신앙 고백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서는 또 물질과 관련해 우리의 정곡을 찌르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 6:21, “네 보물 있는 그 곳에는 네 마음도 있느니라.”** 또 예수님은 우리에게 다음과 같이 기도할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마 6:11,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이 기도는 바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양식과 삶의 필요들이 나의 재능과 노력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재물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더 사랑하며 재물의 주되심(Lordship)을 인정하는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나의 나 된 것은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전 15:10)”**고 고백했던 사도 바울의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제목

1. 주님의 자녀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 앞에 놓인 영적 시험 가운데 승리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2. 우리교회가 함께 협력하는 OMSC, KGMLF 선교 단체 가운데 건강과 필요 그리고 영적인 풍성한 은혜를 내려 주시도록 기도하겠습니다.
3.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우리 교회 성도들과 가족들을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영적인 강건함과 더불어육적인 필요로 채워주시옵소서